

東아시아에 있어서의 『敬』 哲學의 성립과 전개**

高 橋 進*

• 目 次 •

- | | |
|-------------------------|--------------------------|
| I. 序 論 | III. 李退溪에 있어서의 『敬哲學』의 성립 |
| II. 程伊川과 朱子에 있어서의 『敬』사상 | IV. 結論를 대신하여 |

I. 序 論

유학은 본래 「정치·교육의 학」이라든가 「修己治人の學」이라고 일컬어져 왔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心學」이라고도 불리워져 왔다. 인간에 있어서의 마음 수양을 특별히 중시했기 때문이다. 마음의 수양이란 인간의 자기형성, 즉 個의 인격적·도덕적 주체의 확립을 의미한다. 個는 그것(인격적·도덕적 주체의 확립)에 의해 자기 가족을 가지런히(齊家)하고 국가·사회를 통치·지도하며, 세계 평화를 실현할 것을 요청받아 왔다. 그 출발점이 되고 또 중핵이 되는 것이 마음의 수양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도덕적·인격적 주체의 확립이었기 때문에 유학은 「心學」이라고 일컬어졌던 것이다.

중국 송대에 생긴 신유학은 세계·존재의 원리를 理로 보고 인간의 존재 원리 내지 도덕적 원리를 「性」으로 생각하여 이 「性」·「理」를 중

* 目白大 학장

** 퇴계학연구원, 『퇴계학보』 제44호(1984) 게재논문

심으로 하는 심원한 형이상학과 도덕철학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인간에 있어서의 자기형성 즉 인격적·도덕적 주체확립을 지향하는 학문의 방법으로서 「敬」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특히 程伊川과 朱子は 「敬」을 중시하는 사상을 확립하였다. 그러나 程伊川에 있어서는 「敬」은 아직 학문의 방법으로서 진리를 파악하고 도덕적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입문이라고 하였다. 또 주자에 있어서는, 자기의 마음을 「敬」의 상태로 두는 것과 진리를 구명하고 파악하는 것은 서로 互進되는 것이라 보고 이 양자(居敬과 窮理)는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의 관계에 있으며 둘 다 儒學의 목적 그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이조조선 전기에 있어서의 이퇴계에 이르자 이 「敬」개념은 그의 세계관·인간관을 포함한 철학체계의 중핵에 자리잡게 되어 「敬哲學」로서 성립되었다. 이것은 마침내 일본의 江戸時代 초기에 수용되고, 그에 따라 신유학은 「敬」사상을 중심으로 하여 우선 정착되었으며, 그 이후는 개성적으로 전개되었다. 종래 신유학은 주자에 의해 집대성되었다고 일컬어져 왔으나 필자는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신유학의 지역적 전개(중국 한반도 일본)를 개관할 적에 이퇴계는 「敬哲學」을 확립시킴으로써 신유학을 더욱 개성적인 실천철학으로서 체계적으로 재집대성한 사상가로 위치지우고 싶다. 이하의 논술에서 이것들을 논증하겠다.

II. 程伊川과 朱子에 있어서의 「敬」사상

송대의 신유학에 있어서의 선구자로서는 周濂溪 張橫渠 程明道 程伊川 등의 사상가가 있었다. 그들은 모두 세계나 존재에 대한 특색있는 형이상학적 사상과 도덕론 정치론을 제창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전통적 유학에 있어서의 「修己治人學」 「心學」로서의 기본적 성격을 계승하고 있었다. 형이상학적인 심원한 사유나 도덕적 이론을 제시하여도 그들은 이들 학문의 중심에 그것을 배우고 사색하고 실천하는 주체로서의 인간

의 자기형성 내지 도덕적·인격적 완성이라는 과제를 설정하고 있었다. 그 과제는 바꾸어 말해 인간의 마음의 존재방식에 관련된다. 인간의 본성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자각하고 자득하여 실천적으로 현실화시킬 것인가, 그것을 위하여 외계의 事象·事物에 어떻게 대응하여 다양하게 동작하는 인간의 마음을 제어할 수 있을까 — 이들 과제는 송대에 있어서 신유학을 담당한 사상가들에게 공통된 것이었다.

宋學이 「道理의 學」, 「性理의 學」로서 아무리 그 형이상학적 사유의 심화를 가져다 주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유학인 이상 일상적 실천으로부터 차츰 깊은 진리에 도달한다는 것과 더불어 자기 본심을 잘 지키고 길러(存心養性) 자기 언동을 반성 고찰하는 것이 중시되었던 것은 당연한 노릇이다. 그 가운데서도 학문의 목적·방법을 명시하고 유학의 범위를 한정하며 불교·노장사상을 이단으로서 배제시키는 「爲學論」과 학문을 배우는 태도 및 자기수양을 권장하는 「存養論」은 유학이 단순한 사변적 철학이 되지 않기 위하여 특히 중시되었다. 단적으로 말하면 학문을 통하여 자기수양하는 것이 실천적 주체확립을 촉구하고 실천적 주체확립이 「修己治人之學」의 樞要를 이룬다고 생각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 「敬」이나 「誠」과 같은 개념이었다. 北宋의 유가들이나 南宋의 朱子도 다 같이 학문하는 주체인 마음의 존재방식으로서 이같은 개념들을 들어 그 실천을 요청하였다. 程明道·程伊川 형제는 「敬」을 중시하였는데 특히 程伊川은 주자에게 강한 영향을 주고 있다. 程伊川은 학자가 걱정할 일은 「마음이 분란하여 안정되지 않은 상태」라 하고 이것은 「천하의 公病」이며 학자는 먼저 무엇보다도 「이 마음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한다.¹⁾ 「마음을 세운다」는 것은 학자가 학문에 대한 명확한 자각을 갖는 일이다. 유학을 「心學」이라 하는 이유도 여기서 볼 수 있다. 程伊川은 「진리를 파악하기 위하여는 마음을 공경스럽게 하는 것보다 더한 것은 없다」고 말하고, 또 「자기지식이 충분히 달성되고 있는데도 아직 마음이 敬의 상태가 아닌 일

1) 『二程遺書』 권15, 『近思錄』 권4 所收

은 있을 수 없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자각하여 정하지는 아니하고, 나의 마음을 제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것은(외부의) 事象이(내부의) 마음을 번거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오히려 事象을 번거롭게 하는 것이다」고 말한다.²⁾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제어하는 일이 지식을 달성하고 마음을 공경스럽게 하는 근거라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외부의 만물에 대응하여 갖가지로 변화하고 사려도 저절로 생긴다. 외물의 영향으로 마음을 안정되게 保持할 수가 없다. 만일 그것을 면하려면 마음에 主가 되는 것이 없어서는 안된다. 그것이 있으면 내 마음을 내가 주체적·자각적으로 守保할 수 있다. 그 主가 되는 것이야말로 「敬」인 것이다. 마음에 主가 되는 것, 곧 主가 있으면 마음은 虛하여 사악이 들어올 여지가 없다. 마음에 主가 없으면 마음은 實이 된다. 實이 된다는 것은 외물이 마음에 침입해와서 마음을 빼앗는 일이다. 사람은 자기 마음을 두 가지로 움직이게 하여서는 안된다. 내 마음을 一事에 집중시켜서 사용할 때는 他事가 마음에 침입할 수 없다. 마음에 主=主가 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敬」을 가지고 내 마음의 主로 삼는다면 마음에 분란은 생기지 않는다. 이른바 「敬」이란 一(一事)을 主로 하는 것이고 一이란 마음이 이리저리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³⁾ 이상이 程伊川학설의 요점이다.

주자는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程伊川학설을 가장 존중하였다. 그는 마음에 敬을 保持시키기 위한 공부는 程伊川이 상술하였다고 했다. 그리고 程伊川의 다음 三說을 인용했다.

- 사람의 마음이 잘 가지런하게(齊) 되고 긴축돼 있으면 마음은 곧 하나(一)이다. 하나가 돼 있으면 저절로 치우치거나 실수하지 않는다.
- 養心을 함에 있어서는 「敬」로서 하고, 학문을 진전시키는 데는 지식을 달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2) 같은책

3) 같은책

○ 진리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敬」을 따르는 일 이외는 방법이 없다. 지식을 충분히 달성시키고도 마음이 「敬」의 상태에 있지 않은 자는 없다.⁴⁾

주자는 이 다음에 「유학에는 특별한 요점이 없다. 철두철미 다만 ‘敬’자가 있을 따름이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참으로 확신에 찬 말이다. 주자는 程伊川의 말을 더욱 발전시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학자의 공부하는 마음을 어떻게하여 敬의 상태로 둘 수 있을까, 어떻게 하여 理를 窮明할 수 있을까 하는 두 가지에 있다. 게다가 이 두가지는 서로 관련되어 있다. 理를 능히 窮명할 수 있으면 마음을 ‘敬’의 상태로 두는 공부도 날로 진보할 것이고 마음을 ‘敬’의 상태로 능히 둘 수 있으면 理를 窮명하는 공부도 날로 정밀해질 것이다.»⁵⁾

程伊川에 있어서는 마음을 기르는(養心)일 — 「敬」, 학문을 진보시키는 일 — 지식의 달성, 이렇게 두가지로 나뉘어 생각되고 있었다. 그런데 주자는 「마음을 敬에 두는 것」과 「理를 窮명하는 것」이 二事이면서 一事이고 一事이면서 二事라는 密接不離의 관계로 포착하고 있었다. 또 程伊川에 있어서는 敬은 마음을 기르는(養心) 공부, 지식달성은 학문을 진보시키는 공부였고 이 경우의 공부는 양자의 방법을 뜻했던 것이다. 그런데 주자가 右記文에서 「학자의 공부」라고 할 때 이 공부는 단순한 「학문의 방법」의 의미에 머무르지 않는다. 주자에 있어서의 「마음을 敬에 두는 것」과 「理를 窮명하는 것」은 학문의 공부나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학문 그 자체, 학문의 목적 그것이었다고 해석되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주자에 있어 「理를 窮명하는 일」은 학문의 목적 그것이지 단순한 학문의 수단·방법은 아니었다. 주자에 있어서의 「窮理」는 단순한 지적인 실천활동은 아니다. 주자의 「理」은 세계와 인간을 관철하는 理法이었다. 현대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세계 내지 존재의 理法임과

4) 『朱子文集』 권41 · 答程允夫

5) 『朱子語類』 권9 持守

동시에 인간존재의 도덕론적 理法 즉 인륜의 理法을 뜻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같은 의미에 있어서의 「궁리」는 곧바로 성인이 되는 營爲였던 것이다. 「궁리」는 주자에 있어 지적인 이법의 획득만을 뜻한 것이 아니라, 그것의 覺得 내지 體得을 뜻하고 있었다. 이 사실은 『大學』 제5장의 주자의 補說을 보면 분명하다.

「궁리」에 실천적 단계는 있어도 그것은 수단·방법을 뜻한 것은 아니다. 「궁리」는 유학의 목적이자 수단 방법은 아니다. 이같은 의미를 지닌 「궁리」가 「敬에 거하는 것」과 이으면서 一, 一이면서 二라는 밀접불리의 관계에 있다고 주자에 의해 언명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주자에 있어서는 「敬」 내지 「敬에 거하는 것」은 「궁리」를 위한 수단·방법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 「궁리」와 함께 학문의 목적 그 자체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것이다. 거기에 程伊川의 「敬」 개념과 다른 발전이 보인다 할 것이다. 정말 「敬에 거하는 것」과 「理를 궁명하는 것」은 불가분리적인 一事가 아니어서는 안 되었다.

Ⅲ. 李退溪에 있어서의 「敬哲學」의 성립

程伊川에 있어서는 마음을 기르는 것, 학문을 진보시키는 것이 「敬」과 「지식」으로 대응하여 분리돼 있었다. 그리고 「敬」은 마음을 기르는 방법적 의미에 그치고 있었다. 주자에 이르러서는 「敬에 거하는 것」과 「理를 궁명하는 것」은 서로 관련되어 진보하는 불가분의 것으로 보고, 학문의 목적 자체로 높여지고 있다. 그러면 시대를 내려오고, 지역을 넘어 宋學에 있어서의 「敬」사상이 한반도에 이입되었을 때 그것은 어떻게 수용·이해되고 어떻게 개성적인 재구성을 달성시켰을까. 여기서는 송학 특히 주자학을 가장 정통적으로 수용·이해하고 또 그것을 발전시킨 이퇴계의 사상체계에 「敬」이 어떻게 자리잡고 있는가를 고찰해 보겠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퇴계는 청년시대에 『心經』을 읽고 대단히 감

명을 받아 終世토록 이를 尊信하였다. 그의 사상형성에 있어 크게 영향을 주었으리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같은 점들에 대해서는 이미 연구된 바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퇴계의 철학체계와 「敬」사상이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겠다.

이퇴계의 최만년의 최대의 저작은 『聖學十圖』와 그 前文에 해당되는 『進聖學十圖劄子』이다. 이것들을 종합적 또는 분석적으로 고찰해 보면 놀랍게도 거기에 이퇴계의 장대한 세계관 내지 존재론·인간론·도덕론 학문론 등이 하나의 체계를 이루면서 떠오르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필자가 상세하게 논한 적이 있다.

우선 前文에는 『聖學十圖』 제작의 동기, 학문(유학으로서의 聖學)의 목적 방법 등이 장문으로 서술돼 있다. 처음에 말한 바와 같이 이퇴계도 또한 성학은 「心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성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서, 마음은 일신의 주재자이며, 인간의 의식이나 행동은 모름지기 그 단서가 마음에서 나온다. 따라서 인간언동의 모든 책임은 마음에 있다. 학문의 근본은 이 마음을 어떻게 하여 바르게 작용시킬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마음의 작용의 주된 것은 「생각한다」는 사실이다.

「생각한다」고 하는 마음의 뛰어난 작용이 충분히 작동하여 사물의 理를 궁명할 수 있다면 성인이 될 수 있는 징조가 거기에 보인다고 할 것이다. 『論語』에 「배워서 생각하지 않으면 罔이고, 생각하고서 배우지 않으면 殆」라 하였는데 반드시 「생각」함으로써 사물의 微細와 통할 수가 있다.

또 사물을 배우고(學) 익히지(習) 않으면 몸(身)에나 마음(心)에나 정착할 수가 없으며 위태롭고 불안하다. 고로 「생각한다」는 것과 「배운다(學)」(실천을 의미함)는 것은 상호 촉발하여 서로 유익한 것이 되지 않아서는 안된다. 「생각한다」는 것이나 「배운다」는 것은 결국에 가서는 마음의 작용에 귀착된다. 성학에 있어서는 마음의 존재방식이 가장 중요하다. 이퇴계는 그 마음의 존재방식에 대하여 「敬을 갖는 것」이라고

한다. 「持敬」이야말로 思와 學을 겸하고, 動과 靜을 꿰뚫고, 內와 外를 합하여 顯과 微를 하나로 하는 근본이라고 이퇴계는 말한다. 「지경」이란 나의 마음을 삼가고 가지런히(整)하여 고요(靜)하게 一點一事에 집중시키는 일이다. 마음이 발동하면 사유나 감정이나 의지나 나아가서는 행동도 나타난다. 그 때문에 「敬」에 의해 마음을 제어한다는 것은 자기의 인간으로서의 유기적인 동작 일체를 제어하는 일이다. 말할 나위도 없이 「敬」이란 마음의 어느 일정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敬」으로서 마음을 제어한다는 것 곧 「지경」이란 극언하면 마음이 마음을 제어하는 일이 된다. 이 이치를 분명하게 자각하여 學·問·思·弁에 즈음하여 구체적으로 살려서 적용한다. 그로 인하여 보기 전, 듣기 전의 상태에 있어서의 자기를 경계(戒)하고 두려워(懼)한다. 자기를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상태가 더욱 엄격하면 자기를 반성하고 구명하는 일도 점점 더 정밀해진다.

「敬」은 이리하여 인간 심신의 모든 활동 전체를 관통하고 더구나 자기의 인격적 형성의 근원이 아니어서는 안된다고 여겨졌다. 또한 신유학이 강조하는 「공리」에 관해 말하면 사람의 마음이 「敬」의 상태에 있으면 마음은 가장 순수하고 영묘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외부의 物의 理와 마음은(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서로 통하여 理의 파악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持敬」로서 마음을 집중시키는 노력에 의하여 학습하는 일(실천)과 그 대상으로서의 사물이 서로 친숙해져서 마침내 학습은 내 것으로 된다. 이상이 전문에 있어서의 이퇴계의 심학의 大要다. 이론(思)과 실천(學), 心(內)과 理(外)의 통일이 「敬」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설은 송대의 유가들이 일찍이 언급하지 않았던 점이다.

다음으로 『聖學十圖』의 사상체계에 있어 「敬」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이퇴계는 「이 十圖는 모두 敬으로서 위주한다.」(註=第四圖의 補說)고 했다. 이 점을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자. 그에 따르면 제1도와 제2도는 성학의 단서를 구하고 이를 확충하며 세계 내지 존재의 근원을

과약하여 그 理法을 밝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제 1도는 세계 내지 존재의 근원을 묻고 그 근원의 운동에 의해 음양 二氣와 五行이 생하며 나아가 그것들이 변화하고 교체하여 만물을 생성시킨다고하는 논리적 과정을 기술한 것이다. 그런데 제 2도는 오히려 인간세계로 눈을 돌려 인간은 각기 다르게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나 그 생성은 마찬가지로 세계 생성의 원리에 입각한다는 것을 기술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인간 존재의 평등성과 개별성이 밝혀지고 「仁」의 논리적 근원이 부여된다.

그런데 十圖 전체를 꿰뚫고 있는 것이 「敬」이라고 한다면 제2도와 「敬」은 어떻게 관련되는가. 이에 대해 이퇴계는 제1도는 「靜」을 말하고 「敬」은 말하지 않았으나 주자의 註 안에 「敬」을 말하고 있으므로 이로써 보완했다고 제4도의 보설에서 기술하고 있다. 주자의 주에 담긴 요점은 아래와 같다. 성인(이상적 인격개념)은 세계 내지 존재의 理法을 밝히고 그에 따라 인륜의 이법을 확립하여 中正仁義를 정하여 사람의 지켜나갈 규범으로 삼았다. 성인은 完德之人이므로 노력 수양하는 일 없이 중정인인의 덕을 이미 몸에 지니고 있다. 그러나 군자는 수양 노력하여 이 덕을 자득하나 소인은 이에 반해 이 덕을 자득할 수가 없다. 사람이 마음에 「敬」을 가지고 있으면 세계존재의 理法이나 인륜의 理法 또는 그것에 따라 정해진 덕(中正仁義)도 자득할 수 있다. 마음이 욕망에 휩쓸려가고 있으면 이것을 얻을 수 없다.

세계 내지 존재의 理法은 단순한 관념적 사변의 산물은 아니다. 그 탐구는 인간이 거기서부터 도출되는 인륜의 理法이나 中正仁義의 덕 내지 규범을 지키고 身得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持敬」에 의해 이것을 자득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第一太極圖를 최초로 게재한 이유였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上記 朱子の 註 말미에 사람이 「敬」에 의해 욕망을 줄여가서 마침내 무욕에 이르면 마음은 고요해지고 순수(虛)해지며 마음이 動하여도 「곧게(直)」된다.」 — 고 기술하고 있는 점이다. 이것을 보면 「敬」에 의해 무욕에 이른다는

것은 마음이 「敬」 그 자체가 되는 것을 뜻하고 「敬」 그 자체로서의 마음이 순수하고 虛靜이라고 생각된다. 그렇게 되면 心=無欲=敬=虛靜이라는 논리적인 관계가 성립된다. 이 경우의 「敬」은 마음의 본체이고, 환언하면 「敬」의 본체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이 본체로서의 마음의 「敬」이 발동하면 그 심의 움직임인 사려나 情意 등은 곧음(直)이 된다. 직이란 자연이며 도리에 합당한 것을 뜻한다. 이것은 분명히 「敬」이 用으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리하여 「敬」에는 본체와 用(작용)이 있고 그 본체에 있어 마음은 허정하고 그 用에 있어 사려·정의 등은 바로고 자연적이며 도리에 합당하다 — 고 해석할 수 있다. 이 퇴계는 주자의 주석을 인용하면서 「敬」이 세계·존재의 이법 및 인류의 이법 성립을 인간 주체에 있어 가능하게 하는 근거라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또 제2도에 있어 이퇴계는 이 「理一分殊」의 설을 깊이 자각하면, 천지만물과 일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성학의 목적인 仁의 실천도 절실해지고 효과가 나타난다. 그것만이 무차별 평등주의나 개인주의에 빠지는 것을 면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인간은 모두 동포이며 또 모두 개별적이라는 제2도가 제시하는 논리는 정작 사랑의 이법으로서의 仁이다. 사람의 마음에 사랑하는 것과 사랑받는 것의 조리가 자각·체득될 때에 仁은 인간주체의 도덕적 행위로서 성립될 수 있다. 이퇴계는 여기서도 「持敬」을 그 자각·체득의 근거에 둔다. 「聖學十圖」는 모두 敬으로서 위주한다.」고 한 대전제는 여기서도 관철돼 있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敬」로서 사랑의 조리로서의 仁을 覺得하고 마음이 사랑의 조리 그것이 되는 것 그것은 정작 마음이 「敬」의 본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 그 본체가 발동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사랑한다고 하는 작용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敬」의 용이다. 여기서도 우리는 「敬」에 본체(또는 체)와 용이라는 양면의 성격이 있다는 것을 명언하지 않을 수 없다.

이퇴계는 제자인 李宏仲의 물음에 답하여 「敬」의 본체와 용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마음이 靜과 엄숙의 상태에 있으면 그것은 「敬」의 체이고 마음이 動하여서도 아직 바르고 가지런(整)하게 돼 있으면 그것은 「敬」의 용이다. 「敬」의 體와 用을 마음(의 상태)에 따라 볼 수 있다고 하면 가하다. 그러나 「敬」의 體, 用을 곧 마음의 體用이라고 한다면 불가하다.⁶⁾ 「敬」의 體와 用은 어디까지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보아야하며 마음의 體, 用 그것 자체는 아니라고 한 이퇴계의 발언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다음 제 3도와 제 4도는 『小學』 『大學』의 二書에 의해 작제되었다. 『小學』은 모름지기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행동양식의 훈련 및 禮·樂·射·御·書·數의 修熟을 통하여 유소년의 심신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大學』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성학 본래의 목적인 「修己治人」을 위한 학문 및 실천의 요건을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그 출발점 내지 근본은 말할 것도 없이 「修己」에 있었다. 『大學』에서는 그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마음을 바르게 하고(正心) 뜻을 誠意롭게 하며 사물에 格하여 지식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퇴계는 第四大學圖에 있어 주자의 「敬」설을 인용하여 들고 있다. 「敬」은 일심의 주재이고 만사의 근본이다. 따라서 모든 노력·수양의 중심은 「持敬」에 있지 않으면 안된다. 『小學』은 「持敬」로부터 시작하고 『大學』은 「持敬」의 끝 또는 완성이 아니어서는 안된다. 「敬」은 正히 성학의 시종이다. 이것이 주자 「敬」설의 요점이다. 이퇴계는 여기에 부가시켜 「敬」은 위에서 아래까지(철저히) 모든 일에 대하여 공부하게 하고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정말 필요한 것으로서 이것을 잃어서는 안된다. — 고 말하고 있다. 「위에서 아래까지」의 위는 聖學十圖로 말하면 제 1도·제 2도로서 인간을 포함한 이 세계·존재의 理法을 발견하고 거기에 순하여 人倫理法을 창조하는 것을 뜻하며, 아래는 아주 신변적인 일상생활의 기본적 행동양식으로부터 선을 밝게하고 몸

6) 『퇴계전서』2 권36 p.234

을 성의롭게 하며 덕을 높여서 갖가지 일을 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제 6도에서 제 10도까지의 다섯 그림은 「마음의 본성에 기초하고 있고 그 구체적 요건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실천에 힘쓰고 경외심을 숭상하는데 있다」고 이퇴계는 단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로서 이해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후반 다섯 그림은 주로 학문내지 실천의 주체인 인간의 내면적인 마음이나 본성에 관하여 밝혀 놓음과 아울러 「敬」의 실천의 장소와 때(時)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즉 제 6도는 理와 氣의 논리적인 인식을 겹쳐서 행하고 본성과 정을 통일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 따라서 일신을 주재하는 마음을 「敬」로서 기르(養)고 지켜(守)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마음이 발동하기 전에는 나의 본성을 守·養하고 마음이 발동하면 그 움직인 다음을 충분히 반성하고 밝게 한다. 이것이 성학의 근본이고 「지경」의 기본적 태도다. 이퇴계는 이와 같이 마음의 있음새(존재방식)를 가장 중시하고 「敬」에 의해 마음을 삼가(愼)고 긴축시키며 가지런하게 지켜 나갈 것을 강조한다.

제 7도에 있어 이퇴계는 주자 仁說을 채용하였다. 仁이란 「천지(자연)가 物을 생하는 마음이다. 천지(자연)가 만물을 생육하는 작용(心)은 사람 마음의 본성인, 사람을 사랑하고 物을 생하게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천인상응의 논리가 명확히 제시되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의 사욕을 극복하고 자연의 條理에 복귀하여 마음에 「敬」을 가짐으로써 仁의 실천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仁이 사랑의 理(仁의 體)와 사랑의 發(仁의 用)로 나뉘어져 논술되었어도 그 근저에는 「지경」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제 8도는 문자 그대로 「心學」을 설명하고 있다. 사람의 마음에 욕망이 있는 것은 당연하나, 그 욕망을 눌러 멈추게 하고, 도심으로 인도하는 노력·공부의 요건은 마음을 「敬」에 두고 거기서 떠나지 않게 하는데 있다. 대저 마음은 일신의 주재이고 「敬」은 일심의 주재다 — 고 하는 논리가 근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제 9도는 「敬」의 구체적 실천세

목과 그것을 적용시키는 허다한 경우를 명시하였다. 그러나 「敬」의 실천은 다시 그 노력 공부하는 때(時)가 필요하였다. 제 10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에 취침할 때까지의 노력·공부해야 할 「敬」의 실천 세목이 명시되고 있다.

IV. 結論를 대신하여

이미 필자가 다른 논문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聖學十圖』와 그 「前文」은 이퇴계의 장대한 철학체계를 담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 사상체계의 내용은 환언해서 이 논문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敬」사상에 의해 일관되고 「敬」을 핵으로하여 구조화되었으며 체계화된 것이었다. 「敬」은 程伊川에 의해 특히 중시되었다. 주자에 이르러 학문의 공부내지 방법·수단의 域을 탈각하고 「敬에 거하는 것」과 「理를 궁명하는 것」은二이면서 一, 一이면서 二로서 상호 밀접하게 진전될 일로서 강조되었다. 「敬」은 이리하여 「궁리하는 것」과 함께 유학의 목적으로서의 위치를 잡고 성학의 始終이라고 까지 일컬어졌다.

그러나 주자라 하더라도 「敬」중심의 사상체계의 구축에는 이르지 못하고 평면적으로 「敬」의 중요성과 의의를 설명할 뿐이었다. 「居敬」과 「窮理」는 주자에 있어서는 논리적으로 충분한 齊合性을 가지고 통일된 사상구조가 돼 있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주자 몰후 삼백년을 지나 異文化·異民族에서 그 학문이 수용되었을 때 신유학은 「敬」중심의 체계적 철학으로서 재구축되었다. 세계 및 존재의 이법과 인륜의 이법을 묻는 형이상학적 사색으로부터 인간의 인격적·도덕적 자기형성과 거기에 관련되는 정치행동 및 일상적인 구체적 실천에 이르기까지 이퇴계의 사상에는 일관하여 「敬」이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다.

이퇴계에 있어서도 「窮理」라고 하는 형이상적 사색이 경시되었던 것은 아니다.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居敬」 속에 제합적으로 포함되어

「심학」로서의 유학체계로 재구축되었던 것이다. 이퇴계에 있어서는 「敬」은 사변(이론)과 실천(자기형성에서 治人이라는 정치적 활동에 이르기까지)의 양면에 있어서의 진정한 원동력이었다. 그같은 「敬」철학이 이퇴계한테서 성립된 근본 원인은 아래 사정에 의해서였다고 생각된다. 즉 다른 논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에게 있어서는 이미 유학의 전통적인 「天命觀念」이 그의 내면에 있어서 거의 소실돼 버렸었다. 따라서 인간의 도덕적·인격적 자기형성은 어떠한 의미에 있어서나 「천명」의 의식 내지 자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상에 던져진 인간의 자기 자신의 실존적 자각에 입각한 주체성의 확립 이외에 없었기 때문이다.

「敬」에 의한 인간의 실존적 주체성의 확립을 강조한 이퇴계의 사상은 마침내 이율곡에 이르러 「敬에 의해 誠에 이른다(至)다」하는 사상으로 전개되었다. 또는 이퇴계의 학문과 인간을 존중하고 그의 학문을 수용하여 江戶初期에 신유학을 정착시킨 일본 유학자들(특히 藤原惺窩, 林羅山, 山崎闇齋, 佐藤直方등)은 거의 齊一하게 「敬」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을 확립시켰다. 「敬」중심의 유학사상은 드디어 「誠」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으로 전개되지만, 일본 근세 유학사상의 전개는 이퇴계철학의 영향을 무시하고는 논할 수 없다.

(안 병 주 譯)